

## 한국기업의 EC 進出方案에 관한 研究

高 在 經

무역학과

(1980.6.10 접수)

## 〈要 約〉

EC地域은 世界의 貿易과 金融 및 經濟協力 등 世界經濟의 中心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한국經濟에서는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그 比重이 낮아서 날로 國際化的 趨勢가 進展되고 있는 한국經濟로서는 EC地域은 第1의 經濟協力擴大對象地域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EC地域에의 進出에는 몇가지 隘路點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事情에서 EC進出을 위한 基本方向으로서 첫째 EC經濟構造의 動態的 綜合分析에 立脚한 對 EC經濟協力綜合對策의 樹立 둘째 合作投資促進 세제 유로커런시 市場의 活用擴大 등을 들 수 있다. 이 외에도 商品의 高級化, 마케팅의 強化, 機械類의 輸入擴大, 經濟協定締結強化, 定期經濟協力會議 設置, 民間交流擴大 등을 아울러 고려해야 할 것이다.

## A Study of the Possibility of Korean Enterprises Entering the E. C.

Jai-Kyung Ko

Dept. of International Trade

(Received June 10, 1980)

## 〈Abstract〉

The European Community region is the center of the world economy in the international trade, finance, and economic cooperation. The Korean economy still depends much more on America and Japan than the European Community. As for the Korean economy which is endeavoring to become world-wide, the E.C. area is the most important target for the expansion of economic cooperation.

However, we can expect several difficulties in entering the European Community, considering such situation, I would like to suggest several basic devcies to develop the economic interrrelation with the European Community as follows:

1) to study the ways of coping with the problem of establishing a comprehensive economic cooperation plan

2) to promote joint investment.

3) to make wider use of the Euro-currency market. Together with these measures, I think, we should consider,

a) the manufacturing of high-quality goods.

b) the strengthening of marketing.

c) the expansion of the importation of machinery.

d) the conclusion of economic cooperation agreement.

e) the opening of a regualr economic cooperation council.

f) the increase of civilian interchange, etc.

## I. 序 論

最近의 우리나라의 모든 經濟問題가 企業의 販賣不振인 內需不足과 輸出不振에 連유되고 있다. 大部分의 사람들은 속수무책이 아니냐 하는 式의 疑念을 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경제外的인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연약한 체질의 우리나라 經濟이지만 오늘의 고생은 반드시 來日의 祝福을 약속해 주는 “진통기”로 筆者는 確信하면서 EC地域 進出을 위한 방안을 研究코자 한다.

EC地域은 世界의 貿易과 金融 및 經濟協力 등 世界經濟의 中心地임에도 아직 韓國經濟에서는 미국이나 日本에 비해 그 比重이 낮아서 날로 國際化趨勢가 進展되는 韓國經濟로서는 EC地域은 第1의 經濟協力擴大對象地域이라 하겠다.

韓國의 輸出에서 EC가 차지하는 比重(76年)은 15%에 불과하여 미국의 32%의 半이 안되며, 일본의 23%의 2/3밖에 되지 않는다. 韓國의 輸入에서

EC地域이 차지하는 比重(76年)은 더욱 작아 8%에 지나지 않아 미국의 22%의 약 1/3에, 그리고 일본의 35%의 1/4에 不過하다.

資本과 技術導入에서도 EC地域이 韓國의 對外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작다. 1959年에서 76年 사이에 韓國이 導入한 外資中 EC地域으로부터의 外資는 全體의 19%로서 미국 資本의 36%나 일본資本의 24%보다 捰된 작다.

EC地域은 現在 世界의 貿易과 金融의 中心地일 뿐만 아니라 앞으로 世界의 貿易과 金融의 中心地로서의 役割을 계속할 것이다.

UN이 1977年에 發表한 世界經濟의 長期豫測中間報告書<sup>(1)</sup>에 의하면 2,000年에도 EC 9個國이 中心이 되는 西歐는 GNP面에서는 미국에 뒤지나 輸入과 資本輸出에서는 여전히 世界 第1의 中心地가 될 것이 豫測되고 있다. 2,000年에 西歐의 輸入은 6,690億弗에 달하며 미국과 캐나다의 合計인 北美의 2,220億弗의 3倍, 일본의 1,090億弗의 近 7倍에 달하여 西歐는 世界輸入의 34.2%를 占하는 世界 第1

〈表 1〉 世界經濟의 長期展望

單位：億弗，%

地 域	1970		2000		B/A	
	金額(A)	構 成 比	金額(B)	構 成 比		
GNP	先 進 國	27,230	84.7	92,890	71.6	3.4
	北 美	10,600	32.9	27,200	21.0	2.6
	西 歐*	<b>7,290</b>	<b>22.6</b>	<b>21,660</b>	<b>16.7</b>	<b>3.0</b>
	日 本	2,000	6.2	8,410	6.5	4.2
開 途 國	4,980	15.3	39,740	28.4	8.0	
輸 入	先 進 國	2,860	83.4	13,360	68.3	4.7
	北 美	650	18.9	2,220	11.3	3.4
	西 歐*	<b>1,490</b>	<b>43.4</b>	<b>6,690</b>	<b>34.2</b>	<b>4.5</b>
	日 本	180	6.4	1,090	5.5	6.1
開 途 國	570	16.6	6,210	31.7	10.9	
資本輸出	先 進 國	240	90.2	1,630	77.3	6.8
	北 美	100	37.6	560	26.5	5.6
	西 歐	<b>100</b>	<b>39.1</b>	<b>680</b>	<b>32.1</b>	<b>6.8</b>
	日 本	30	10.2	250	11.7	8.3
開 途 國	30	9.8	480	22.7	16.0	

資料：UN, The Future of World Economy, 1977

\* EC 9個國+EFTA 6個國(포르투갈除外)+페로아일랜드+그린란드

(1) 이것은 노벨經濟學賞受賞者인 미국의 레온티에프(Wassily Leontief)를 責任者로 하는 經濟學者들이 UN의 委囑을 받아 1次報告書로 作成한 The Future of the World Economy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77)임.

의 輸入地域이 될 것으로 豫測된다. 資本輸出에 있어서도 2,000년에 西歐은 680億弗에 이르러 世界資本輸出의 32.1%에 달하여 北美의 560億弗(26.5%)이나 일본의 250億弗(11.7%)을 훨씬 앞질러 世界1位の 資本輸出地域이 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그러나 EC地域에 대한 어두운 면도 없는것은 아니다.

EC의 各會員國은 相異한 政治·經濟事情으로 말미암아 貿易政策에 대한 利害關係의 總和로 表現되는 共同貿易政策은 保護主義의 性向을 더욱 짙게 할 가능성이 높다. 사실 프랑스, 英國 및 獨逸은 貿易을 外交政策의 政治的 手段으로 利用하려고 하는 反面, 이태리, 베네룩스三國 등은 貿易을 本質的으로 經濟政策의 主要한 要素로 보고 있다. 그리고 貿易收支가 비교적 好調를 보이고 있는 獨逸, 베네룩스三國 등은 保護貿易主義의 強化에 制動을 거는 立場에서는 反面, 貿易收支가 深刻한 赤字를 보이고 있는 프랑스, 英國, 이태리 등은 保護貿易主義의 強化에 發動을 거는 立場에서는 것이다. 一般的으로 各會員國은 自國의 利益을 極大化하는 길은 獨自的인 貿易政策을 追求하는 것이라는 부리길

은 思考方式을 지니고 있으므로 EC의 共同貿易政策은 各會員國의 保護主義의 總和위에 基礎를 두게 되는 傾向이 있다. 그러나 最近 EC의 輸入規制強化現象은 保護貿易主義의 복귀라고는 보기 힘들며 長期的으로는 規制措置가 緩和乃至 撤廢될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現 EC의 輸入規制는 國際收支의 急激한 惡化나 一時的인 市場攪亂에 기인하는 短期的인 措置가 아니고, 國際收支의 慢性的인 赤字, 失業의 增加, 域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弱화, 先發開企國의 進出擴大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相當한 정도로 構造의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短時日內 解決될 것으로 期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最近 EC의 保護主義強化 內容을 보면 一般特惠, 關稅의 供與規模를 大幅 縮小했을 뿐만아니라 纖維類에 있어서는 規制範圍를 全纖維類로 擴大하였고, 規制方式에 있어서도 雙務協定을 통한 輸出 自律規制로 轉換하여(鐵鋼類 및 鉛類) 規制措置를 長期間 合法化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世界最大貿易地域인 EC地域에 進出하기 위해서 本論文에서는 序論으로 부터 시작하여 2章

〈表 2〉 韓國의 對 EC\* 輸出入

單位: 百萬弗

	輸 出			輸 入			對 E C 貿易 收支
	總 輸 出	對 EC 輸出	比 率**	總 輸 入	對 EC 輸入	比 率**	
1964	119	7	6	404	34	8	-27
65	175	12	7	463	38	8	-26
66	250	18	7	716	52	7	-34
67	321	16	5	996	62	6	-46
68	455	21	5	1,463	121	8	-100
69	623	34	5	1,824	159	9	-126
70	835	51	6	1,984	175	9	-123
71	1,068	59	6	2,394	196	8	-137
72	1,624	115	7	2,522	183	7	-68
73	3,225	345	11	4,240	294	7	50
74	4,460	552	12	6,852	336	5	216
75	5,081	754	15	7,274	538	7	216
76	7,715	1,151	15	8,774	674	8	477
64~76 平均伸張率	41.5%	53%	—	29%	29%	—	—

資料: 韓國貿易協會「貿易動向」(1975.12), 76年 總計는 「貿易統計年報」(1976.12)

\* 72년까지 統計는 英國, 덴마크, 에이레除外

\*\* 韓國貿易에서의 EC貿易의 比重

EC와 한국과의 무역관계 現況을 한국의 對 EC貿易과 EC의 對韓輸入規制의 兩部門으로 다루겠으며 3章에서 EC域內分業體系의 展望을 4章 한국企業의 EC進出方案 5章 結論으로 하는 順序로 研究코자 한다.

## II. EC와 한국과의 貿易關係現況

地域面에서 뿐만 아니라 交通上의 面에 있어서도 상당히 不便한 位置에 있는 EC地域과 우리나라가 그間 經濟的 交流를 쌓아오긴 했으나, EC와 한국과의 經濟協力은 EC의 世界經濟에서 차지하는 比重에 비추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아직 모든 面에서 不振하다.

### 1. 한국의 對 EC貿易

한국의 對 EC輸出入은 1964年 輸出 7百萬弗, 輸入 34百萬弗에 不過하였으나, 1976년에는 輸出 1,151百萬弗, 輸入 674百萬弗로 놀라운 伸張을 보였다. <表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64~76年 사이에 한국의 總輸出的 平均伸張率은 41.5%인데 비하여 對 EC輸出的 그것은 53%를 기록하여 이보다 11.5%포인트나 더 높은 놀라운 伸張率을 보였다. 對 EC輸入은 한국의 平均輸入伸張率과 같이 29%의 伸張率을 보여 64年 以後 76년까지 輸入 比重은 8%로 不變이나 輸出比重은 6%에서 15%로 增加하여 무려 2.5倍의 輸出比重 增大를 示顯했다. 그러나 EC諸國이 世界貿易의 1/3以上을 차지하는 點을 고려하면 위와같은 EC諸國의 韓國貿易에서의 比重은 아직 상당히 낮다고 할 것이다.

對 EC貿易의 이러한 飛躍的 發展은 1973年을 基點으로 從來의 慢性的 貿易赤字現象을 反轉시켜 1976년에는 477百萬弗의 貿易黑字를 記錄하였다.

EC貿易에서의 한국의 比重을 살펴보면 아직 微微하다. <表 3>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6年 EC諸國

<表 3> EC의 輸出入中 韓國의 比重

單位: %

	1970	1971	1972	1973	1974	1975	1976
輸 出	0.15	0.15	0.12	0.12	0.12	0.18	0.21
輸 入	0.04	0.05	0.07	0.16	0.19	0.25	0.33

資料: 韓國貿易協會「貿易動向」

(1975.12), IMF, IFS(1977.8)

의 輸出에서의 한국의 比重은 0.21%, EC諸國의 輸入에서의 한국의 比重은 0.33%인데 이것은 同年 世界貿易에서의 한국의 輸出 比重 0.9%보다 훨씬 낮은 水準이다.

그러나 1970~76年間의 趨勢를 보면 한국貿易이 EC諸國의 貿易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점차 增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70年에서 1976年間에 EC諸國의 輸出중 韓國에 대한 輸出比重은 0.15%에서 0.21%로 增加하였으며 輸入의 경우는 이보다 훨씬 급속히 增加하여 0.04에서 0.33으로 8倍以上 增加하여 EC의 對韓輸入比重이 輸出比重보다 훨씬 빠른 速度로 增加하고 있다.

한국貿易에서 輸出構造의 問題點中 하나인 輸出對象國 偏在現象이 對 EC輸出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表 4>에서와 같이 1976年 對 EC輸出總額에서 차지하는 國別比重을 보면 서독이 398百萬弗로 34.6%, 영국이 254百萬弗로 22.1%, 네덜란드가 198百萬弗로 17.2%의 比重을 보여 이들 3國이 全體의 약 3/4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國家들의 比重은 微微한데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自體輸入規模가 큰에도 不拘하고 韓國輸出에서의 比重이 작은 것은 特記할만하다.

그러나 1970~76年間 國別 輸出比重의 變化推移를 보면 輸出對象國 偏在度가 점점 낮아져 가고 있음을 發見할 수 있다. 프랑스가 1970年 3.1%에서 1976年 7.7%로 4%포인트 以上 增加하였으며, 벨기에, 룩셈부르크가 3.1%에서 9.2%로 약 6%포인트 增加하였으며, 덴마크도 0.5%에서 3.8%로 크게 增加한 反面에, 서독은 41.5%에서 34.6%로 7%포인트 정도 減少하였고, 이탈리아는 10.8%에서 4.6%로 약 6%포인트 減少, 네덜란드가 21.5%에서 17.2%로 4%포인트 以上 減少하여 國別偏在度가 어느정도 減少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한국의 對 EC輸出的 急激한 增大와 더불어 對 EC貿易에 대한 밝은 展望을 갖게 하는 要因으로 作用하고 있다.

輸入의 경우에도 輸出과 마찬가지로 輸入先이 偏在되어 있다. 그러나 輸出國 偏在現象은 점차 改善되어가고 있는 것과는 對照的으로 輸入國偏在現象은 더욱 深化되어 가고 있다.

<表 5>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0年 한국의 對 EC輸入의 國別比重은 프랑스가 52百萬弗로 25.0%, 독일 67百萬弗로 32.2%, 영국이 33百萬弗로 15.9%

〈表 4〉 韓國의 對 EC輸出의 國別構成

單位：百萬弗，%

	1 9 7 0		1 9 7 5		1 9 7 6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프 랑 스	2	3.1	40	5.3	89	7.7
이 탈 리 아	7	10.8	42	5.6	53	4.6
서 독	27	41.5	312	41.4	398	34.6
네 델 란 드	14	21.5	129	17.1	198	17.2
벨 기 에 · 룩셈부르크	2	3.1	41	5.4	106	9.2
영 국	13	20.0	162	21.5	245	22.1
덴 마 아 크	0.3	0.5	22	2.9	44	3.8
에 이 레	0.04	0.1	6	0.8	9	0.8
E C	65	100.0	754	100.0	1,151	100.0
미 국	395	—	1,536	—	2,493	—
일 본	236	—	1,293	—	1,802	—

資料：韓國貿易協會「貿易動向」(1975.12), 「貿易統計年報」(1976.12)

〈表 5〉 韓國의 對 EC輸入의 國別構成

單位：百萬弗，%

	1 9 7 0		1 9 7 5		1 9 7 6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프 랑 스	52	25.0	137	25.5	163	24.2
이 탈 리 아	20	9.6	29	5.4	34	5.1
서 독	67	32.2	193	35.9	238	35.3
네 델 란 드	23	11.1	20	3.7	30	4.5
벨 기 에 · 룩셈부르크	12	5.8	30	5.5	27	4.0
영 국	33	15.9	123	22.9	171	25.4
덴 마 아 크	1	0.5	6	1.1	9	1.3
에 이 레	0.001	0.0	0.3	0.1	1	0.2
E C	208	100.0	538	100.0	674	100.0
미 국	584	—	1,881	—	1,963	—
일 본	813	—	2,434	—	3,100	—

資料：〈表 4〉와 같음.

를 차지하여 全體의 73.1%를 占했던 것이, 1976년에는 프랑스가 163百萬弗로 24.2%, 서독이 67百萬弗로 32.2%, 영국이 33百萬弗로 15.9%를 차지하여 全體의 73.1%를 占했던 것이, 1976년에는 프랑스가 163百萬弗로 24.2%, 서독이 238百萬弗로 35.3%, 영국이 171百萬弗로 25.4%를 차지하여 이 3國이 全體의 84.9%를 占하게 되어 이들 3國에의 輸入偏重度가 더욱 높아져 가고 있다. 比重이 增加

하고 있는 나라는 영국과 서독으로서 1970년에 各 各 15.9%, 32.2%에서 1976년에 25.4%, 35.3%로 增加하였으며, 比重이 減少하고 있는 나라는 이탈리아와 네델란드로서 1970년에 各 各 9.6%, 11.1%에서 1976년에는 두나라 모두 5%정도로 減少하였다.

여기서 하나 注目할 것은 한국의 對 프랑스 貿易 收支이다. 한국의 對 EC諸國貿易에서 현재 唯一한

貿易收支赤字國은 프랑스이다. 76年 현재 한국의 對 프랑스輸出은 89百萬弗인데, 對 프랑스輸入은 163百萬弗로서 한국의 對 프랑스 貿易收支는 74百萬弗의 赤字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프랑스의 自體 輸入規模에 비해 한국의 對 프랑스 輸出이 他 EC 諸國의 경우와 비교해도 너무나 적기 때문이다. 프랑스의 輸入規模로 보아 앞으로 프랑스는 輸出增大의 可能性이 매우 큰 國家라 하겠다.

한국의 對 EC輸出品目別構成은 주로 纖維類中心의 輕工業製品 내지 雜製品으로 構成되어 있다고 特徵지을 수 있다. <表 6>에서 보는 바와같이 1976年 品目別 構成은 纖維類(469百萬弗, 41%), 電子

製品(150百萬弗, 13%), 鐵鋼板(65百萬弗, 6%), 合板(64百萬弗, 6%), 신발類(49百萬弗, 64%), 合成樹脂(46百萬弗, 4%), 煙草(39百萬弗, 3%) 등 7 個品目이 中心을 이루며, 이들이 76%를 차지하고 있다.

輸出的 主宗을 이루는 纖維類는 1975年의 경우 全體에 대한 比重이 50%였던 것이 1976년에는 41%로 9%포인트 下落하였으며, 그 외 合成樹脂, 煙草가 75년에 비해 그 比重이 多少 減少하였다. 한편 電子製品, 鐵鋼板, 合板 新발類 등은 75년에 비해 比重增加勢를 크게 나타내었다.

<表 7>에서와 같이 한국의 對 EC輸入品目은 機械

<表 6> 한국의 對 EC輸出的 商品別 構成

單位：百萬弗，%

	1 9 7 5		1 9 7 6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纖 維 類	398	50	469	41
電 子 製 品	51	9	150	13
鐵 鋼 板	15	2	65	6
合 板	16	2	64	6
신 발 類	26	3	49	4
合 成 樹 脂	36	5	46	4
煙 草	42	5	39	3
其 他	195	24	272	24
總 計	798	100	1,153	100

資料：商工部「輸出統計」

類와 化學製品이 大部分을 차지한다. 1975년에는 機械類가 270百萬弗로 全體의 50%, 化學製品은 75百萬弗로 全體의 14%를 記錄하여 이들 2個品目이

全體의 64%를 차지하였는데 1979년에는 이들 品目의 比重이 더욱 增加하여 機械類는 443百萬弗로 66%, 化學製品은 132百萬弗로 20%나 되어 對 EC 全

<表 7> 한국의 對 EC輸入品目別構成\*

單位：百萬弗，%

品 目	1 9 7 5		品 目	1 9 7 6	
	金 額	構 成 比		金 額	構 成 比
機 械 類	270	50	機 械 類	443	66
化 學 製 品	75	14	化 學 製 品	132	20
其 他	193	26	鐵鋼 및 그 製品	25	4
			其 他	74	11
總 計	538	100	總 計	674	100

資料：韓國貿易協會「貿易統計年報」

\* 1976年부터 종래 SITC分類에 따르던 商品分類를 BTN分類로 變更하였으므로 1975年과 1976年의 品目別 分類를 一致시킬 수 없음.

體輸入에서 86% 를 占하고 있다.

鐵鋼 및 그 製品까지를 합치면 1976年 重化學工業製品이 차지하는 比重은 무려 90%에 이르고 있다.

以上과 같이 EC地域은 世界 第1의 貿易 및 金融地域으로서 經濟協力擴大의 潛在的 可能性은 가장 큰 地域이지만 現實的으로는 經濟協力擴大를 容易하게만은 하지 않는 몇가지 隘路點을 갖고 있다.

첫째로 한국과 EC地域은 모두 資源不足國으로서 資源을 輸入하여 이를 加工하여 輸出하는, 基本的으로는 同一한 經濟構造를 갖고 있어서 相互 經濟的 補充性이 不足하다.

둘째로는 遠距離에 떨어져 있어 輸送費와 通信費가 他地域보다 많이 든다.

셋째로는 歷史的으로 지금까지 疎遠하여 相互 特別한 紐帶關係가 거의 없기 때문에 EC諸國이 第3世界에 주고 있는 特惠(에컨데 로메協定)를 한국은 기대하기 힘들다.

넷째로는 石油事態以後 自國內 經濟事情이 惡化

됨에 따라 EC諸國은 輸入規制를 強化하고 있다.

以上과 같은 隘路點을 考慮하면서 한국의 對 EC 進出을 위한 여러가지 基本方案을 생각하여야 할 것이다.

## 2. 한국의 EC技術導入

한국의 EC諸國으로부터의 技術導入은 1964年 愛敬油脂에서 서독 chhold Chemc社로부터 알키드樹脂 및 폴리에스틸樹脂 特許實施權을 導入한 것이 嚆矢가 되어 1977年 6月 30日 現在 總 68件的 技術導入을 示顯하였다.

<表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독보다 2年, 일찍 시작된 미국으로부터의 技術導入 168件, 서독보다 2年 늦게 시작된 일본으로부터의 導入 516件에 비하면 EC技術導入은 매우 不振했음을 알 수 있다. 1977年 6月 30日 現在 한국의 總導入件數 786件에 대해 各國이 차지하는 比重은 일본이 516件, 65.6%로 가장 많고, 미국이 168件, 21.4%로 그 다음이

<表 8> 한국의 技術導入의 國別 年度別推移(認可件數)

	合 計	E	C	미 國	일 本	기 타
1962	6	—	—	4	—	2
63	1	—	—	1	—	—
64	2	2	—	—	—	—
65	3	—	—	3	—	—
66	17	3	—	4	10	—
67	36	1	—	12	23	—
68	51	4	—	14	32	1
69	61	3	—	10	46	2
1970	84	3	—	17	62	2
71	45	2	—	6	35	2
72	50	5	—	10	34	1
73	69	5	—	17	47	—
74	84	8	—	12	60	4
75	94	11	—	19	58	6
76	123	14	—	23	76	10
1977. 6.30	60	7	—	16	33	4
合 計	786	68	—	168	516	34
構成比(%)	100.0	8.7	—	21.4	65.6	4.3

資料：經濟企劃院

며, EC諸國은 68件으로 8.7%를 占하여 EC로부터의 導入은 일본의 約 1/8, 미국의 約 2/5에 不過하다. EC諸國의 國別導入件數는 서독이 27件으로 제일 많고, 영국이 19件으로 다음이며, 네덜란드 6件,

프랑스 6件, 이탈리아 5件的 順이다. 서독은 EC諸國全體 68件中 27件을 차지하여 그 比重은 約 40%에 이르고 있다.

年度別 推移를 보면, 한국의 技術導入은 한국의

第1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 實施 첫 해인 1967년부터 本格化하였으나, EC諸國으로부터는 同計劃期間 보다는 第3次 經濟開發五個年計劃期間(1972~1976) 중에 주로 導入되어 EC諸國으로부터 도입한 68件的 63%인 43件이 이 期間중에 도입되었다.

〈表 9〉에서와 같이 韓國이 도입한 EC諸國의 기술중에는 農·林·水産業의 技術導入은 없고, 鑛·工業이 62件, 社會間接資本이 6件이다. 鑛·工業중에서도 機械가 21件으로 제일 많아 全體 68件的 約 31%를 차지하며, 精油 및 化學工業이 17件으로 25%, 製藥이 8件으로 12%를 차지하여 이들 3個業種이 全體의 68%를 占하고 있다.

주요業種의 技術導入國을 보면 機械業種에서의 技術導入(21件)은 주로 서독(9件)과 영국(6件)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그의 프랑스(2件), 이탈리아(2件), 네덜란드(1件) 및 덴마크(1件)로부터 도입되었고, 精油및化學技術(17件)은 주로 영국(6件), 네덜란드(5件) 및 서독(4件)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그의 프랑스(1件)와 이탈리아(1件)로부터 導入되었다. 製藥技術(8件)은 주로 서독(4件)과 영국(2件)으로부터 도입되었으며, 그의 프랑스(1件)와 이탈리아(1件)로부터 導入되었고, 通信技術(3件)은 모두 서독에서 導入되었다.

〈表 9〉 한국의 技術導入의 國別 業種別 現況(認可件數)(1959~1977. 6. 30)

	合 計	E	C	미 國	일 本	기 타
1. 農 林 水 産 業	8	—		4	4	—
農 業 및 畜 産 業	8	—		4	4	—
2. 漢 工 業	731	62		151	486	32
食 品	12	—		5	5	2
刊 紙 및 製 紙	10	1		4	4	1
紡 織 · 織 物	18	1		13	3	1
化 學 織 維	19	1		3	14	1
窯 業 및 시 멘 트	15	2		1	12	—
精 油 및 化 學 工 業	152	17		35	94	6
製 藥	26	8		7	9	2
金 屬	71	5		12	49	5
電 子 및 電 氣 機 器	153	2		31	116	4
機 械	210	21		32	152	5
造 船	10	3		1	3	3
其 他	35	1		7	25	2
3. 社 會 間 接 資 本	44	6		13	26	2
電 力	10	2		3	5	—
通 信	29	3		6	20	—
建 設	8	1		4	1	2
合 計	786	68		168	516	34

資料：國際經濟研究院

### 3. EC의 對韓輸入規制

70년대부터 強化되기 始作한 先進諸國의 保護主義傾向은 石油波動以後 점점 더 深化되어 날이 갈 수록 規制對象品目的 範圍가 擴大되고 規制方式도 多樣化되고 있다. 弱極의으로 GATT는 모든 非關稅障壁의 撤廢와 關稅의 引下를 指向하고 있지만

MFA와 Safeguard條項에 입각한 輸入制限은 물론 GATT規約을 위배해서 實施하고 있는 其他輸入制限도 공공연히 行해지고 있는 實情이다. 더우기 非關稅障壁에 대한 輸入國과 輸出國의 견해차이로 非關稅障壁의 撤廢 내지 緩和에 관한 만족스런 國際間協商이 지연되고 있으며, 現在 國際經濟情勢를 考慮해 볼 때 앞으로 계속 規制의 範圍와 方式이



擴大되고 複雜해 진것으로 展望된다.<sup>(2)</sup>

1978年 2月末 現在 OECD 24個國中 18個國이 우리나라 輸出商品에 대해 BTN 4單位를 基準으로, MFA에 의한 規制品目 124個品目を 포함해서 164個品目에 規制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14個國에서 17個品目에 대해 새로운 規制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EC에 의한 우리나라 輸出商品에 대한 規制를 보면 纖維類協定에 의한 纖維類規制가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다. 이를 國家別로 보면 貿易收支가 최근 불안정한 英國, 프랑스, 덴마크 등이 심한 편이다. 1978年 2月 28日 現在 EC諸國에 의한 對韓輸入 規制品目現況은 <表 10>과 같으며, 輸入規制下의 EC에 대한 우리나라의 輸出實績推移는 <表 11>과 같다. <表 11>에서 보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總輸出에 대한 規制下의 輸出比率이 一般的으로 增加하고 있으며 이는 美國과 日本에 대한 輸出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表 10> EC諸國에 依한 우리나라 輸出에 對한 規制品目現況

(1978. 2. 28 現在)

國 家	規 制 品 目 (CCCN-4品位: 138個品目)	規制움직임이 있는 品目
E C (共同)	全纖維類, 鐵鋼類	신발類, Inner Tube 및 자전거타이어
프 랑 스	라디오, 우산 및 양산, 絹織物, 雜製品, 展示用品	신발類, 鐵鋼類, 金屬製바퀴
英 國	黑白TV, 사카린, 비닐생켈	金屬製洋食器, 신발類, 鐵鋼類, 혁제렌즈백
덴 마 아 크	카펫, 녹음기, 金屬製洋食器	自動車 및 部品, 家電製品
西 獨	金屬製洋食器	신발類
이 탈 리 아	EC共同規制品目外 其他規制品目없음.	
아 일 랜 드	"	
베 네 룩 스 3國	"	

資料: 商工部, 韓國貿易協會

<表 11> 輸入規制下의 EC에 對한 輸出實績推移

<單位: 千달러>

國別	年度	1 9 7 5			1 9 7 6			1977(1~6月)		
		總 輸 出	規制下 輸 出	比率(%)	總 輸 出	規制下 輸 出	比率(%)	總 輸 出	規制下 輸 出	比率(%)
EC		753,541	304,274	40.4	1,150,750	373,646	31.6	631,043	206,205	32.7
西 獨		312,238	136,965	43.8	398,278	156,568	39.3	202,581	81,392	40.2
프 랑 스		40,052	11,757	29.4	88,722	21,639	24.4	62,436	18,480	29.6
英 國		161,770	68,593	42.4	253,922	73,638	29.0	135,724	36,694	27.0
베 덜 란 드		128,968	49,599	38.5	198,118	60,790	30.7	101,537	35,562	35.0
이 탈 리 아		42,472	13,523	31.8	53,071	15,105	28.5	49,829	18,148	36.4
벨기에·룩셈부르크		40,549	12,899	31.8	105,724	14,510	13.7	36,098	8,548	23.7
덴 마 아 크		21,839	9,722	44.5	43,899	20,186	46.0	37,839	6,913	18.3
아 일 랜 드		5,653	1,226	21.7	9,016	1,210	13.4	4,999	468	9.4
美 國		1,536,287	572,818	37.3	2,492,573	954,183	37.5	1,415,752	544,006	38.4
日 本		1,292,904	23,122	1.8	1,801,554	260,599	14.5	933,884	149,555	16.0

資料: 關稅廳貿易統計, 商工部

이와같은 EC의 輸入規制는 GATT가 認定하고 있는 일시적인 市場攪亂이나 國際收支의 急激한 惡化 등을 理由로 한 短期的인 措置라기 보다는 EC

經濟의 根本的인 취약성에서 기인하는 것으로서 相當한 정도로 長期的이고 制度的인 性格을 띠고 있다. 그렇다고 해서 EC의 保護貿易傾向은 幼稚産業

(2) 國際經濟研究院, Special Analysis Series 제27호, "EC의 對韓輸入規制", 1978. 5. 8, pp.28~35.

保護를 目的으로 하는 傳統的인 保護貿易主義는 결코 아니며 오히려 EC經濟의 고질적 문제인 國際收支赤字와 失業을 解決하기 위한 一種의 政策手段으로서 소위 新保護主義의 性格을 띠고 있다.

EC의 輸入規制要因은 具體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貿易收支의 慢性的 赤字

EC의 貿易收支는 小幅의 赤字를 유지해 오다 74年 石油事態 以後 最近 赤字幅이 大幅 擴大되었다. 1976年에 EC諸國의 貿易收支 赤字는 170億달러에 이르렀다. 이같은 貿易逆調現象은 因으로 數年間 계속되리라 展望되기 때문에 EC는 日本 등 逆調現象이 심한 貿易相對國에 規制措置를 強化하고 있다.

### ② 低成長政策의 追求

域內인플레이션과 輸入需擴大 우려로 EC諸國은 擴大政策을 回避하고 있어 景氣回復이 지연되고 있다. 비록 現在 景氣浮揚策이 論議되고는 있지만 조만간의 景氣回復은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 ③ 失業率의 增加

74年 石油事態以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인해 EC의 失業率은 74年 2.7%에서 76年 5.0%로 大幅 增大되었다. 특히 섬유산업과 같이 국제경쟁력이 약하여 수입이 급증한 산업에서 실업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사양산업에서 수입규제의 요구가 강하게 대두하고 있다.

이러한 EC의 狀況이지만 EC는 基本的으로 自由貿易을 追求하고 있고 貿易依存度도 높기 때문에 (1976年, 48.6%) EC經濟의 安定과 成長은 世界貿易의 發展에 크게 依存하고 있다.

따라서 最近 EC의 輸入規制強化現象은 保護貿易主義로의 복귀라고는 보기 힘들며 長期的으로는 規制措置가 緩和 및 撤廢된 것으로 보여진다.

그렇지만 現 EC의 輸入規制는 國際收支의 急激한 惡化나 一時的인 市場攪亂에 기인하는 短期的인 措置가 아니고, 國際收支의 慢性的 赤字, 失業의 增加, 域內産業의 國際競爭力弱화, 先開途國의 進出擴大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相當한 정도로 構造的 性格을 띠고 있기 때문에 短時日內 解決될 것으로 期待하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最近 EC의 保護主義強化 內容을 보면 一般特惠關稅의 供與規模를 大幅·縮小했을 뿐만 아니라 纖維

類에 있어서는 規制範圍를 全纖維類로 擴大하였고, 規制方式에 있어서는 雙務協定을 통한 輸出自律規制로 轉換하여(鐵鋼類 및 신발類) 規制措置를 長期間合法化하려 하고 있다.

따라서 世界最大貿易地域인 EC의 輸出을 擴大하기 위해서는 政策的인 차원에서 輸入規制에 대한 合理的이고 綜合的인 對策이 必要하다 하겠다.

## III. EC域內分業體系의 展望

單一國內市場形成을 目的으로 한 18世紀의 國民經濟統合運動이나 戰前 植民地의 吸收를 통한 閉鎖的 블록經濟의 形成에서 經濟統合의 根源을 찾아볼 수 있으나 戰後의 地域經濟統合의 움직임은 그 性格에 있어기 이들과 分明히 區別된다. 即 戰後의 地域經濟統合은 以前段階에서의 小規模性 或은 閉鎖性을 排除하고 地域內의 自由貿易을 통하여 보다 큰 大市場을 形成함으로써 會員國 相互間의 協力에 의한 分業化의 利益을 追求하려는 目的에서 出發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이다.

이러한 地域統合 움직임의 始發은 1950年代 中 西歐에서 登場한 EC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當時 西歐諸國에서는 戰後의 本格的인 成長段階에 들어가면서 資源의 効率的인 利用과 相互協調를 이룩함으로써 그들이 目標로 하는 經濟成長을 加速화시키기 위하여 既存의 ECSC의 經驗을 根據로 EC의 結成을 強力하게 推進하였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은 世界貿易의 立場에서 볼때도 先進諸國間의 水平的 國際分業의 擴充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期待되어 肯定的으로 생각되었다. 이렇게 形成된 EC를 始初로 하여 地域經濟統合의 趨勢는 크게 擴大하기 始作하였다.

이렇게 볼때 地域經濟統合의 움직임이 戰後 世界經濟에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뚜렷한 趨勢이기는 하지만 域內分業化의 進展이나 世界貿易의 擴大에 대한 効果는 결코 肯定的인 것만은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經濟統合에 따른 効果는 크게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고 하겠는데 그 하나는 關稅同盟의 結成 그 自體에 의한 域內去來의 自由化에 의한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大市場의 形成에 의한 規模의 經濟에 의한 것이다.<sup>(3)</sup>

(3) 國際經濟研究院, Special Analysis Series 제 18호, "EC域內分業體系의 現況과 展望" 1978. 12. 4. pp 177~183.

EC의 경우는 1958年 發生當時에도 各國間의 類似한 經濟構造를 바탕으로 比較的 活潑한 交易이 이루어지고 있었지만 以後 經濟統合이 形成되어 關稅同盟이 完成됨에 따라서 그 域內分業化는 크게 進展을 보이고 있다. 卽 1次製品에 대해서는 別다른 分業化의 進展을 찾아 볼 수 없지만 工業製品에 있어서는 各國間의 分業化가 크게 進展되어 72년에 이르던 同品目에 대하여 域內各國이 거의 完全한 水平的 分業化의 段階에 까지 이르고 있다. 工業製品 가운데서도 특히 重化學製品에 대한 分業化가 發足當時에 비하여 顯저한 進展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傾向은 勿論 그간의 經濟發展에 따른 影響도 큰 것이겠지마는 統合에 따른 關稅撤廢와 大市場의 形成이 보다 活潑한 分業化의 進展과 經濟의 効率化를 通해서 經濟成長 그 自體도 促進시키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이러한 推移는 各國의 經濟構造를 高度의 先進工業國의 水準으로 더욱 接近시키면서 계속적인 分業化의 進展과 더불어 經濟成長을 促進시키고 있어서 여기서 統合에 따른 分業化進展의 成功의인 例를 發見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와같은 地域經濟統合의 움직임은 戰後 世界經濟構造의 變化와 그에 따른 國際分業體制의 變遷과 關聯하여 하나의 뚜렷한 趨勢로 登場하고 있지만 經濟統合이 域內外에 미치는 效果에 대해서는 充分히 밝혀지지 못하고 있으며, 統合自體가 域內國의 分業化를 促進시키게 되는지에 대해서도 一般의인 結論은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事實이다. 그러나 比較的 成功의인 統合體로 評價되고 있는 EC의 경우는 統合에 의하여 域內國의 分業化를 크게 促進시킨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地域經濟統合이 그 構成國의 性格이나 相互協調 여하에 따라서는 充分한 期待效果를 發生시킬 수 있다는 것을 示唆하고 있다.

EC는 戰後 유럽再建을 目的으로 또한 멀리는 유럽統合의 遠大한 目標를 내걸고 1958년에 發足되었다. 그 成立의 背景으로는 戰後 유럽이 처하고 있던 政治·經濟의 與件과 유럽統一에 대한 傳統的인 念願이 크게 作用하고 있던 것은 事實이지만 그에 못지 않게 統合에 따른 經濟的 利益에 대한 기대도 컸었다. 몇 번에 걸친 危機를 겪으면서 當初의 豫定보다 2年이나 앞당겨 1968년에는 關稅同盟을 完成하고 이어서 가장 큰 관건이었던 共同農業政策의 實施를 達成하게 되어 確固한 基盤을 確立하였으며

1973년에는 英國, 에이레, 덴마크 等を 吸收하여 9個國으로 擴大되었다. 이리하여 그 經濟規模나 貿易量에서 가히 世界經濟의 中心地로서 國際經濟舞臺에서의 地位를 確保해 가고 있는 것이다.

EC各國은 원래부터 대체로 高度로 發展된 先進工業國들로서 國土 및 人口의 크기에 따라서 各國間에 經濟規模의 差異는 크지만 所得水準이나 產業構造 등은 극히 類似한 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統合에 따른 效果가 크게 나타나기 그 貿易은 統合以後 活潑한 伸張을 보였으며 특히 域內貿易에서 顯저한 發展이 이룩되었다. 이러한 域內貿易의 急速한 伸張은 統合에 따른 分業化의 進展과 더불어 各國間에 域內分業體系에 對한 適應 혹은 調整의 過程을 內包하고 있는 것인바 그 變遷推移와 特徵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域內貿易에서 나타나는 EC各國의 特化品目의 變遷推移를 發足當時인 55年과 關稅同盟完成의 效果가 充分히 나타나고 있는 72年을 對比하여 分析해 보면 55年 當時에는 飲食料品에는 프랑스, 이탈리아, 베네틀란드가 特化하고, 原料料品은 西獨과 케네틀란드가 特化, 그리고 工業製品에 대해서는 벨기에·룩셈부르크와 西獨이 特化하고 있는 反面 餘他の 나라들은 모두 劣位를 보이고 있어서 域內貿易에서의 各國間의 特化品目이 뚜렷한 區分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러나 經濟統合에 따른 效果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 1972년에 이르던 이러한 域內各國의 特化現象에는 커다란 變化가 나타난다. 이탈리아는 55년의 飲食料品에 대한 特化에서 72년에는 工業製品(輕工業製品)에 대한 特化로 轉換되어 그 간에 急速한 工業化現象을 반영하고 있으며, 西獨·벨기에 등 工業製品에 크게 特化를 보이던 나라는 그 優位가 減少하고 있는 反面 劣位에 있던 나라들은 그 劣位가 크게 改善되어 베네틀란드를 除外한 모든 나라가 工業製品에 있어서 거의 水平型에 接近하고 있다. 그러나 1次製品에 있어서는 各國의 特化나 劣位の 程度가 그 方向에 있어서는 工業製品과 마찬가지로 水平分業化로 變遷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아직도 各國間에 分明한 優劣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關稅同盟의 完成에 따른 分業體系的 變遷推移는 1次製品에 있어서는 特化하는 나라는 약간 바뀌고 있지만 各國間에 優劣關係가 分明하게 나타나는 現象에는 큰 變化가 없지만 工業製品에 대해서는 各國間의 優劣關係가 크게 鈍化

되던서 水平的 分業化가 크게 發展하고 있는 것이 特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sup>(4)</sup>

한편 72년에서 76년에 이르는 期間에는 EC自體도 서로 9個國으로 擴大되었을 뿐만 아니라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世界經濟構造에도 큰 變化가 있었지만 원래의 6國間에서만 볼 때는 域內에서의 特化 現象에는 별다른 變化가 나타나고 있지 않고 대체적으로 工業製品에 對한 水平的 分業化가 한걸 進展되고 있다.

다음에는 9個國間의 域內貿易에서 나타나고 있는 76年の 各國特化品目的 現況을 살펴보면, 76年の 現況에서 볼때 EC諸國은 세가지 그룹으로 區分할 수 있다. 즉 1次製品에 주로 特化하고 있는 네덜란드, 덴마크, 에이레 및 프랑스와 工業製品에 特化하고 있는 西獨(重化學工業製品)과 이탈리아(輕工業製品), 그리고 거의 모든 品目에 걸쳐서 대체로 水平的分業現象을 보이고 있는 벨기에·독일·프랑스와 英國 등으로 區分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區分은 어디까지나 相對的인 意味에서 인 뿐이다. 왜냐하면 1次製品에 있어서는 各國間에 상당히 큰 優劣의 격차를 보이면서 特化하는 나라가 分明하지만 工業製品에 대해서는 各國間에 優劣의 격차가 미미하여 特化現象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水平的 分業化가 보다 支配的인 傾向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域內에서는 相對的으로 1次製品에 特化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나라일지라도 域外地域에 對해서는 比較的 先進工業國으로서의 貿易構造를 갖고 있어 工業製品에 對한 域內에서의 劣位를 크게 補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1976年の EC域內의 分業體系는 대체로 工業製品을 中心으로 各國間의 水平的 分業化가 크게 進展되고 있으며 相對的으로 域內에서 1次製品에 特화를 보이고 있는 나라도 對域外交易에서 工業製品에 對한 域內의 劣位를 크게 補完하고 있는 것이 그 特徵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工業製品에 對한 水平的 分業化의 發展이 EC形成以來 現在에 이르기까지의 域內分業體系變遷의 가장 뚜렷한 特徵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工業製品에 對한 이러한 水平的 分業化는 EC發足當時에는 輕工業製品에서 약간 그 실마리가 보일뿐 전혀 별다른 進展을 보이고 있지않 았었다.

工業製品을 1次製品에 對稱하는 意味에서 工業品全體로서 볼 때는 勿論 當時에도 比較的 이 品目에 대해서 各國間에 水平的 分業化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그것을 各産業別製品으로 區分해서 볼 때는 아직은 몇몇 나라의 特化와 劣位의 큰 劣位現象이 보다 支配的이었다. 그러나 72년에 이르러서 이 變化되고 있는 樣相이 나타나고 있다. 即 輕工業製品은 거의 모든 나라에 걸쳐서 곧고곧 交易가 活潑하게 이루어지면서 水平的分業化가 계속적인 進展을 고일 軌跡을 나타내고 있다고 하겠다. 勿論 이러한 工業製品에 對한 水平的 分業化의 發展을 單純히 經濟統合에 의한 效果라기 보다는 그간의 經濟成長과 世界貿易의 發展에 크게 起因하는 것으로 보아야겠지만 그러한 過程에서 經濟統合이 이를 더욱 促進시킨 것만은 分明한 事實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76년에 이르러 이러한 工業製品의 水平的 分業化는 더욱 深化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即 輕工業製品의 纖維製品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나라가 水平的 分業化의 水準에 달하고 있으며 重化學製品의 機械類에 대해서도 에이레, 덴마크, 네덜란드를 除外한 나머지 나라는 모두 活潑한 水平的 分業을 遂行하고 있다. 그러나 製品의 細分化에 따른 分業化의 進展이라는 면에서는 輕工業製品은 전혀 發展을 찾아볼 수 없고 重化學製品에서는 크게 發展하고 있어서 에이레, 덴마크, 네덜란드 등도 最少限數個品目에서는 相當한 特化를 보이고 있는 程度에 까지 이르고 있다.<sup>(5)</sup>

이와같이 EC는 當初부터 類似한 經濟構造를 지닌 先進工業國으로 이루어진 經濟統合體로서 設立以後 世界貿易發展의 先導者로서 域內分業化를 크게 促進시켜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 分業體系의 變遷推移 또한 工業製品, 그것도 重化學工業製品을 中心으로 하는 水平的 分業化의 方向으로 進展하고 있어 장차 歐洲統合의 遠대한 目標을 向하여 나아가고 있는 EC의 장래를 보다 밝게 해 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域內分業化의 急速的인 促進과 重化學製品에 있어서는 水平的 分業化의 進展이 모든 經濟統合體에서 다같이 發生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한 지라도 EC가 이어 成功하고 있다는 사실은 地域經

(4) 日本貿易振興會, 「世界の非關稅障壁」1977, pp.180~190.

(5) 國際經濟研究院, 研究叢書 제16호 RM-77-04, 地域經濟統合의 趨勢와 展望, 1977, 4, pp.94~122.

濟統合이 점차 擴大強化되어 가고 있는 추세와 더불어 우리에게 커다란 示唆點을 던져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卽 輸出主導型 經濟成長政策을 成功的으로 遂行하여 大擘의 百億弗輸出의 高地를 占領한 우리로서는 꾸준한 輸出伸張과 더불어 이제 그 産業構造 및 貿易構造의 高度化 卽 重化學工業製品의 輸出比重의 增大를 追水해야 할 必要性을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여기서 EC가 그 統合以後 이러한 方向에서 커다란 成果를 이룩하고 있다는 事實은 우리의 EC에 대한 關心을 더욱 불리 일으키고 同時에 우리도 周邊國家들과의 사이에 地域的 協力を 強化해가야 할 必要性을 환기시켜 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現在 우리나라는 인근의 日本에 대해서는 극단적인 垂直的 分業關係下에 莫大한 貿易赤字를 記錄하고 있으며 여타의 香港, 대만, 싱가포르 등과는 인근국이면서도 相互間的 交易은 比較的 활발하지 못한 가운데 國際市場에서는 서로 競爭國으로서의 關係가 深化되어가고 있다. 더우기 EC의 成功的인 事例를 發端으로 世界各地에서 地域經濟統合의 움직임이 활발하게 推進되어 우리의 貿易對象國의 大部分이 이들 統合機構의 會員國이라는 點을 감안해 볼때 보다 安定的인 輸出伸張과 輸出商品構造의 高度化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既存의 經濟統合體에 대한 理解의 增進 및 積極적인 協力體制的 強化와 더불어 우리의 周邊國들에 대한 關心을 더욱 積極화해 가야할 必要性을 느끼게 된다. 卽 國際市場에서 深化되어 가는 相互間的 競爭을 順기롭게 對處·克服하여 보다 安定的인 貿易伸張을 도모함과 아울러 서로의 市場을 結束하여 重化學工業이 發展할 수 있는 市場基盤을 擴充하고 나아가서는 극도로 垂直的인 關係에 있는 日本과의 사이에서도 適切한 國際分業의 調整을 圖하여 점진적인 改善을 試圖할 必要性을 強하게 느끼게 된다.

#### Ⅳ. 한국기업의 EC進出方案

前述한 바와같이 EC의 輸入規制는 EC經濟의 構造의 취약성에 根據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數年間 계속 強化될 것으로 展望된다. 따라서 우리나라 經濟의 安定的 發展을 위해서는 이에 대한 合理的인 對策의 마련이 절실히 必要한데, 이를 위해 지금까지의 考察을 토대로 EC輸入規制의 一般의 趨

勢와 特徵을 要約해 보면 다음과 같다.

① 一部 特定品目の 選別規制에서 全品目에 대한 一刮規制로 轉換하고 있다. 특히 이같은 現象은 纖維類와 鐵鋼類에 있어서 뚜렷하다.

② 特定國家의 規制가 他國家로 擴大되는 傾向이 있다. 例를 들어 보면 프랑스와 英國의 鐵鋼類에 대한 輸入監視制가 EC에 의한 基準價格制로, 덴마크의 金屬製洋食器에 대한 規制가 西獨과 英國으로 擴大되었다.

③ 鐵鋼類와 纖維類 등 대부분의 品目은 規制의 根本要因이 構造不況에 있기 때문에 規制期間의 長期化가 확실시되고 있다.

④ 原產地證明의 強化 등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實質的으론 規制效果를 노리는 類型的 措置가 增加하고 있다.

⑤ 輸入品에 대한 監視機能을 強化하고 있다. EC는 Inner tube 및 가전거기어에 事後管理制를 프랑스는 鐵鋼製品, 綿糸, 肥料, 양말 등에 事前 Technical Visa制를, 英國은 鐵鋼製品과 金屬製洋食器에 輸入監視制를 實施하고 있다.

⑥ 現在 規制되고 있지 않은 많은 品目에 대해서도 生産業界와 勞組로부터의 強力한 規制要求가 빈번히 發生하고 있다.

⑦ 規制措置의 大部分이 效果가 直接的인 數量限制이다.

⑧ 雙務協定締結에 의한 自律規制方案을 통해 規制期間을 長期化하려는 傾向이 있다. 現在 EC는 纖維類를 自律規制를 통해 規制하고 있으며 鐵鋼類와 선반類規制도 곧 自律規制로 轉換한 예정이다. 그리고 西獨은 韓國과도 金屬製洋食器에 대해서 自律規制에 合意한 바 있다.

위와같은 EC의 輸入規制의 趨勢와 特色을 考慮해 볼 때 우리나라의 對 EC輸出擴大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다 長期的인 觀點에서 綜合的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하겠다.

(1) EC經濟構造의 動態的 綜合分析에 立脚한 對 EC經濟協力綜合對策의 樹立: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한국은 EC對經濟協力擴大에 몇가지 어려운 점을 갖고 있으므로 한국은 EC와의 經濟協力擴大는 事前의 充分한 調査·研究에 基礎를 두고 長期的 眼目에 立脚하여 長期的 進出計劃에 의해서 위와 같은 隘路들을 解決할 수 있도록 多方面으로 推進되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EC로의 輸出을 增大시키기 위

해서는 새로운 輸出品目들의 開發이 必要한데 이를 위해서는 EC地域의 産業構造의 現況과 안으로의 그 構造의 轉換을 正確히 豫測하고 또한 現地の 嗜好를 잘 파악하여 現地の 反撥을 誘發시키지 않고 需要를 增加시킬 수 있으면서 한국이 比較優位를 가질 수 있는 品目을 開發시켜야 할 것이다.

EC로의 輸出品目開發에 關聯하여 하나 덧붙여 말 할 것은 한국의 對 EC輸出品目的 主宗은 역시 雜製品이 되어야 할 것이라는 점이다. EC의 域外輸入品의 中心은 石油類 除外하고는 雜製品이며 이 品目은 역시 石油類 除外하고는 그 輸入增加率도 가장 높다. 즉 EC諸國의 域外輸入品目중 그 需要의 展望이 가장 좋은 것이 바로 이 品目이다. 이는 이 品목이 대부분 勞動集約的 産業의 品目임으로 해서 賃金이 비싼 諸國에서는 이 品目이 점차 斜陽産業化되어 가고 있는 것에 基因한다고 하겠다. 反面에 한국은 저렴한 非練勞動力을 豊富하게 갖고 있으므로 이 品目에 대한 國際競爭力을 갖고 있다. 즉 需要와 供給 兩面에서 이 品目이 한국에게 가장 有利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는 이 品目에 EC의 輸入規制가 集中되고 있으며 輸入規制가 施行되고 있는 것은 이 品目的 一部分이므로 얼마든지 이 品目에서 戰略品目을 開發할 수 있을 것이다. EC諸國의 産業構造上 이 品目的 需要는 더욱 增加할 것이 豫想된다.

#### (2) 合作投資促進

한국과 EC地域이 그 基本的인 經濟構造面에서는 相互同一되어 統一的 補完性이 不足하지마는 한국과 EC地域間에 相互 補完性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서로 相補가 될 수 있는 것을 強調함으로써 相互經濟的 利益을 圖할 수도 있다. 이를 위한 가장 좋은 方法의 하나가 合作投資라고 볼 수 있다.

EC地域이 못가질 것으로서 한국이 가진 것은 역시 豊富한 熟練勞動力이다. EC地域의 平均賃金은 한국 平均賃金의 7배나 된다. 한국의 勞動力은 이 처럼 EC에 비해 저렴한 뿐만 아니라 開途國中에서 가장 熟練되어 있다. 또한 한국은 그간의 高度經濟成長을 통해 國際金融市場에서 높은 信用을 쌓았다. 反面에 EC地域은 資本과 技術 그리고 販路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熟練勞動力과 國際金融市場에서의 높은 信用과 地域의 資本과 技術販路를 合作

投資를 통해 結合시킬 수 있을 것이다. 더욱기 한국은 77년에 들어와 國際收支의 好調로 外換保有高도 높아졌으므로 海外投資를 行할 수 있는 資本力도 갖추었다. 하겠으므로 이제 한국은 EC資本의 國內誘致뿐만 아니라 海外에의 直接投資與件도 成熟되었다고 하겠다.

合作投資를 할 경우 한국은 다음과 같은 效果를 얻을 수 있다고 보여진다.

첫째 技術과 디자인을 導入하여 輸出商品은 高級化시킬 수 있다. 한국이 EC와 合作投資하여 國內에 生産工場을 두어 한국의 勞動力을 利用하면 EC로서는 生産費를 節減할 수 있으며 反面에 한국은 品質을 高級化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EC의 바이어와 EC地域에 現地販賣會社를 合作으로 設立하면 EC地域에서의 販路를 開拓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이 製品을 供給하고 現地나이어가 販路를 提供하는 方式으로 合作하면 이와같은 效果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셋째 第3地區(로메協定加入國, EFTA地域 및 東歐圈 등)로의 共同進出을 容易하게 할 것이다. EC는 EFTA地域과 自由貿易을 達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舊植民地였던 아프리카, 카리브海 및 太平洋의 第3世界와 로메協定을 맺고 있고, 地中海國家들과도 聯合協定 내지 特惠貿易協定을 맺어 活潑한 交易을 行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其產圈과도 貿易이 盛한 地域으로서 이들 地域에 販路를 갖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 EC와 合作하면 이 地帶으로의 進出을 擴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특히 第3世界로 한국이 延拂輸出할 경우 EC가 購入先과 유로커런시市場(유로크레디트市場과 유로債市場의 合)에서의 融資를 알선해 주면 한국은 이미 國際金融市場에서 信用을 획득하고 있으므로 유로커런시資金을 延拂輸出資金으로 利用하여 第3世界로의 延拂輸出을 增大시킬 수 있을 것이다.

EC地域과의 合作을 國內에 誘致시키기 위한 한 方法으로서 自由投資地帶<sup>(6)</sup>를 생각할 수 있다. 先進國이 開途國에 投資하는 경우에 큰 장애요인의 하나는 政治的 不安이다. 이를 除去하기 위해서 一定한 地域에 自由投資地帶를 設置하고 이 地域에 投資한 外資에 대해서는 政治的 與件이 變하여 投資金額을 回收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IMF特別引

(6) 自由投資地帶(Free Investment Zone)는, 1977年 8月 25日 國際經濟研究院에서 行한 서울 京畿大學의 H. Giersch 博士의 “新國際經濟秩序(The New International Economic Order)란 題下의 세미나에서 Giersch 博士에 의해 提案되었다.

出權과 같은 海外에 預置되어 있는 自國保有的 海外資産을 自動적으로 保有할 수 있는 權利를 認定하도록 하게 하는 方法을 생각할 수 있다.

### (3) 유로커런시市場의 活用擴大

한국으로서의 世界第1의 資本市場인 유로커런시市場을 活用할 必要性이 점차 擴大되고 있다. 한국 經濟가 國際化할수록 한국의 金融도 必然적으로 國際化하여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世界의 資本이 모이는 유로커런시市場(유로크레디트市場 + 유로債市場)에의 參加가 不可避하다. 더우기 한국은 이미 中進國으로 分類되어 公共資本을 供與받기가 어려워져 앞으로 必要한 外資를 주로 商業資本으로 밖에는 借入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더욱 그러하다.

유로커런시市場의 活用을 擴大함에 있어서 하나 強調할 것은 지금까지는 주로 유로크레디트를 導入해 왔으나, 앞으로는 유로債의 發行에 보다 重點을 두어야겠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유로債가 유로크레디트에 비해 償還期間이 보다 길고 利子率이 낮아 더 有利하기 때문이다. 비단 한국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開途國들의 유로債發行은 매우 不振하였는데 1977년부터는 開途國의 유로債發行도 相當히 增加하고 있으므로, 이미 國際社會에서 中進國으로 分類되어 信用이 높은 한국으로서도 유로債의 發行의 增加는 앞으로 더욱 可能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서는 國際金融機關의 支給保證利用, 發行債等 級査定會社와 接觸強化, 金融弘報強化, 企業의 財務構造改善 등의 方法을 들 수 있겠으며, 이밖에 國際金融專門家의 現地派遣養成, 國際金融機關의 國內誘致強化, 國內企業의 信用與件強化를 들 수 있겠다.

其他의 強調되어야 할 點은 商品의 高級化, 마아케팅의 強化 이를 위해서는 세일즈맨 養成專門機關의 設置, 現地貿易博覽會에의 積極參加, 現地荷置場設置 등이 마아케팅強化의 方法들이 될 것이다.

그밖에 機械類의 輸入擴大, 經濟協定締結強化, 定期經濟協會議 設置, 民間交流擴大 등을 들 수 있다.

## V. 結 論

우리나라 企業의 對 EC 進出은 아직 甚微한 狀態에 있는 것이 事實이지만, EC地域이 貿易, 國際金融에서 차지하는 比重이 莫重한 關係로 EC地域

進出을 위해서 이 地域의 特殊한 社會文化 經濟的 環境을 考慮하여, 經濟交流關係를 擴大하는데 차질을 줄어야 할 것이다.

어느 貿易關係의 論에서나 強調되는 바와같이 우리나라의 對外志向의인 經濟은 우리가 脫皮할 수 없는 形便에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貿易은 우리의 生命과도 같은 것이다. 貿易立國은 目前에 바라보면 더 과감하게 쉬운 最近의 여러가지 國內外的인 事情과 問題를 너와 내가 다같이 힘을 합쳐 克服해나갈 것이다. 우리나라는 좁은 國土에서 많은 食口를 養活하도록 해야하고, 자신들에게 아물답고 祝福받은 祖國을 물려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命題일 것이다.

## 參 考 文 獻

- 國際經濟研究院, 「EC諸國의 經濟現況과 展望」 1977. 10.
- 國際經濟研究院, 「EC의 對韓輸入規制」 1978. 5.
- 國際經濟研究院, 「EC域內分業體系의 現況과 展望」 1978. 12.
- 大韓貿易振興公社, 「主要國의 輸入規制調査」 1977.
- 商工部 國際經濟課, 「輸入規制動向」 1977. 12.
- 韓國貿易協會, 「各國의 對韓輸入規制動向」 1978. 3.
- 韓國貿易研究所, 「貿易研究」, 제3권 제3호, 1971. 9.
- 韓國外換銀行, 「海外經濟」, 제9권 제8호, 1975. 8.
- 松下滿雄, 「歐美輸入制限法制」, 同文館, 東京, 1973.
- 柴田幹夫, 「歐洲共同體의 經濟政策」, 通商産業調査會, 東京, 1976.
- 日本貿易振興會, 「世界의 非關稅障壁」, 東京, 1977.
- Pieter J. Slot,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Obstacles to Trade in the EEC, A. W. Süthoff Leyden, 1975.
- EEC, Monthly General Statistics Bulletin (EC), 1979. 12.